

杜詩에 보이는 杜甫의 空間觀과 時間觀, 그리고 그것들과 杜詩 風格의 相關性에 대한 고찰

李 永 朱*

I. 緒 言

杜詩의 風格은 결코 어떤 하나만을 들어 획일화할 수 없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悲壯하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이전의 많은 두시 연구자들에 의하여 널리 인정되었고 또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논의들은 비장한 풍격 속에 반영된 시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의 주된 논점으로 하였다. 이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감상자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라는 문예관이 중국의 지식계층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시인은 시를 통하여 자기의 정신세계를 표출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 시대의 시는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풍격까지도 시인의 정신세계 전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논점은 杜甫를 이해하고 두시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유용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자들은 주로 두보의 애국사상, 사회나 인민대중에 대한 관심, 그 개인의 높은 기개나 고상한 정신세계 등을 들어서 시의 비장한 풍격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분명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시와 관련된 여러 다른 논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보를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미화하고 두시를 중국시가의 규범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전 연구자들의 두보 숭배사상이 편견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이 있다. 그들이 보기에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두보의 면모, 이를테면 벼슬을 구하던 시절의 갖가지 비굴한 태도와 심리적 갈등, 자신감과 좌절감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조울증적인 성격상의 문제 등은 논의하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특히 安祿山の亂을 전후하여 시에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두보의 사회사상만을 부각하고자 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가 갖는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하여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두시 풍격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유보된 상태이다. 시는 독자에 의하여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다, 시에 대한 해석은 고정적일수록 오류를 범하기 쉽다, 시는 시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전 연구자들의 논점이었던 시에 반영된 시인의 정신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다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편의 두시에서 두보의 空間觀과 時間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 속의 공간을 이루는 시인의 자아와 外物, 그리고 시 속의 시간을 이루는 과거와 현재가 각각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즉 시 속의 공간과 시간은 각각 대립적인 요소가 二元化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上下四方으로 이루어진 공간과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은 ‘宇宙’라는 말에 포괄된다.¹⁾ 이러한 語義를 그대로 따른다면 두시에 반영된 두보의 공간관과 이 글에서 ‘공간관’이란 위치, 방향 등을 의미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物體界를 형성하는 기초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관의 분석에 있어서는 자아와 외물의 관계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시간관은 결국 그의 우주를 보는 시각 및 우주에 대한 이해인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관은 바꾸어 말하여 역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

1) 《莊子·齊物論》‘旁日月挾宇宙’의 《釋文》: 尸子が 말하기를, ‘천지 사방의 공간을 ‘宇’라고 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宙’라고 한다’고 하였다.(尸子云, 天地四方曰宇, 往古來今日宙.) (《大漢和辭典》卷三 ‘宇’字條에서 다시 인용)

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의 풍격은 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인의 정신을 반영하기 마련이며, 시인의 우주관과 역사관은 그의 정신세계에서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두시에 반영된 두보의 공간관과 시간관이 두시의 풍격과 상관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그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것인가? 이 의문과 관련하여 필자는 우선 두시의 풍격이 비장한 것은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壯한’ ‘壯하다’는 말은 여러 측면에서 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두시에서 ‘壯하다’는 것은 풍격 상, 혹은 문체의 筆致 상 ‘壯快하다’ ‘壯壯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맛과 슬픈 맛이 그의 시 속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시 속의 공간 시간과 시의 풍격은 둘 다 그것들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대립적인 구조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을 검토·분석하면 두보의 공간관·시간관과 두시 풍격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두시의 풍격이 비장한 원인을 기존의 시각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본고는 우선 두시에 보이는 시인의 공간관과 시간관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연후에 그것들이 두시의 풍격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시의 비장한 풍격이 두보의 내면심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문제점으로 제기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인의 공간관과 시간관을 검토함에 있어서 시 자체를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를 논의의 발단과 근거로 삼을 뿐, 두보의 행적이나 사상 등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렇게 하여야만 기존의 두시 연구가 종종 범하였던 선입견에 의한 오류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II. 杜詩에 보이는 杜甫의 空間觀과 時間觀

두보의 시 속에 묘사된 시인은 흔히 이 넓은 세계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언

제나 떠도는 고독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 속에 묘사된 공간은 외물과 자아가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든 존재물은 우주의 근원인 道의 일부이자 활용이라는 우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적인 삶의 경지로 내세웠던, 이른바 외물과 자아가 동화된 공간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旅夜書懷〉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한 예이다.²⁾

細草微風岸 危檣獨夜舟
 星垂平野野 月湧大江流
 名豈文章著 官應老病休
 休休何所似 天地一沙鷗

보드라운 풀에 가는 바람 이는 둔덕,
 우뚝한 돛의 외로운 밤배.
 별이 드리우니 별관 너르고,
 달빛 용솨음치며 長江 흘러 간다.
 이름이 어찌 문장으로 드러나리오마는,
 벼슬은 늙고 병들었으니 그만들 밖에.
 정처없는 모습 무엇과 같은가?
 천지 간의 한 마리 갈매기려니.

이 시는 시인의 나이 54세이던 代宗 永泰 元年(서기 765년) 가족을 거느리고 成都 草堂을 떠나서 장강을 따라 내려가던 어느 날 밤에 쓴 것이다.³⁾ 시의 전반부는 당일 밤 시인이 본 공간에 대한 묘사이다. 首聯을 먼저 보자. 여기에는 길게 펼쳐진 江岸과 외롭게 돛대를 세우고 있는 시인의 배가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강안은 수평을, 그리고 높다란 돛대는 수직을 그어 수평과 수직의 대립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생활 능력으로 보아 결코 클리가 없는 배의 돛이 우뚝하게 여겨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넓은 공간에 유일하게 수직의 모습을 취하여 수평과 대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聯의 공간도 수

2) 본고에서 인용하는 시의 본문은 《杜詩詳註》를 따른다.

3) 《補注杜詩》 卷二十七 〈旅夜書懷〉: 마땅히 永泰 원년 成都를 떠나서 배로 州를 내려갈 때 지은 것이다.(當是永泰元年去成都, 舟下 州時作.)

런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대립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별빛이 드리워져 더욱 넓게만 보이는 평야는 靜的인 것이고 안정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달빛 아래 흘러가야만 하는 長江의 물은 動的인 것이며 불안정한 것이다. 전반부 두 연의 공간은 이처럼 대립적인 요소 둘이 서로 응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후반부를 보자. 후반부는 시인의 감회를 토로한 부분이지만, 尾聯의 경우 비유적인 표현을 취하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천지와 시인 자신의 비유물로 등장시킨 갈매기가 이루는 것이다. 넓고 넓은 천지와 그 곳에 붙여 살지 못하고 정처없이 떠도는 갈매기와 같은 시인의 공간은 전반부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두 요소가 대립된 형태이다. 尾聯의 이 공간은 외물과 동화하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산 시인의 심리를 암시한다. 미련을 통하여 시인의 심리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전반부의 묘사가 결코 단순한 경치 묘사가 아니라, 이른바 ‘경치 속에 시인의 감정이 담겨 있는(景中有情)’ 묘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평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직의 모습을 취한 배는 바로 넓고 넓은 자연에 섞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시인 자아의 상징물이며, 모든 만물이 넓은 평야의 어딘가에서 쉬어 쉬고 있을 이 밤에도 쉬어 머물지 못하고 흐르는 장강은 시인 자아의 투영물이었던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여러 공간은 모두 시인의 자아가 외물과 분리되고 대립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즉 시인의 눈으로 보는 공간적 우주는 자아와 외물이 융합하여 일원화된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이원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시인의 공간관이 어떠한 것인지는 자명하게 된다. 시인의 이러한 공간관은 이 세상은 무한히 넓지만 자신은 그 어디에도 몸을 붙이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인의 심리에 의하여 조성된 것일 터인데, 그것은 결코 어느 특정 시기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天寶 10載(751)에 長安에서 지은⁴⁾ 〈樂遊園歌〉에서 시인

4) 《杜詩詳註》卷之二 〈樂遊園歌〉: 張은 ‘天寶 10년에 공은 賦를 바쳐 集賢院에서 조칙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재상에게 시기를 받아 후보자의 차례에만 들었다. 시 가운데의 ‘聖朝已知賤士醜’를 상고하건대 아마도 다땅히 이 해에 지어진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다.(張曰, 天寶十載, 公獻賦, 詔試集賢院, 爲宰相所忌, 得參列選序, 詳詩中聖朝已知賤士醜, 似當在此歲作.)

은 ‘此身飲罷無歸處，獨立蒼茫自詠詩。(이 몸 술을 다 마신 뒤돌아갈 곳 없어, 홀로 서서 창망히 시를 짓는다.)’라고 하였는데, 〈旅夜書懷〉에 보이는 시인의 심리는 이전의 이런 심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자아와 외물이 융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시인의 눈으로 볼 때, 자아와 외물 사이에 감정은 서로 교통할 수 없기 마련이다. 安祿山の 군대가 점령한 長安에 붙잡혀 있던 至德 2載(757)에 쓴⁵⁾ 〈哀江頭〉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少陵野老吞聲哭 春日潛行曲江曲
江頭宮殿墜千門 細柳新蒲爲誰綠
憶昔昔旌下南苑 苑中萬物生顏色
昭陽殿裏第一人 同輦隨君侍君側

.....

明明皓齒今何在 血污遊魂歸不得
清渭東流劍閣深 去住彼此無消息
人生有情淚沾臆 江草江花豈終極
黃昏胡騎塵滿城 欲往城南望城北

少陵의 늙은 야인 소리 죽여 울면서
봄날에 몰래 曲江 모퉁이를 가노라.
장 머리 궁전에는 많은 문이 다 닫혔는데
가는 버들 새 부들은 누굴 위해 푸르런가?
예전 일 생각해보니, 무지개 깃발 南苑으로 내려갈 적
궁원 속의 만물은 생기라도 나는 듯.
昭陽殿의 첫째 가는 이
수레 같이하고 임금을 따르면서 임금 곁에서 모셨다.

5) 《補注杜詩》 卷二 〈哀江頭〉: 至德 二載 九月 癸卯 날에 장안을 수복하였고 十月 任子 날에 낙양을 수복하였다. 이 시에서 ‘봄날 몰래 곡강 모퉁이를 간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이 해 봄에 지은 것이다. 생각컨대 ‘몰래 간다’고 하였고 또 ‘황혼녘에 오랑캐 기병이 먼지를 성에 가득 일으켰다’고 하였으니 적에게 떨어졌을 때 지은 것이 분명하다.(至德二載九月癸卯, 復京師, 十月任子, 復東京, 而是詩云, 春日潛行曲江曲, 當是作於是年春. 蓋謂之潛行, 又謂黃昏胡騎塵滿城, 乃陷賊詩所作, 明矣.)

.....

밝은 눈 하얀 이의 미인 지금은 어디 있나?
 피에 더럽혀진 띠도는 혼은 돌아올 수 없구나.
 맑은 渭水 동으로 흐르고 劍閣은 깊숙한데
 떠나간 이 머문 이 피차에 소식 없다.
 사람의 삶이란 유정한 법, 눈물이 가슴을 적시는데
 강의 풀 강의 꽃은 어찌 끝이 있으랴?
 황혼녘 오랑캐 기마로 먼지가 성에 가득하여
 성 남쪽으로 갈까 하다 성 북쪽 바라본다.

셋째 구와 넷째 구, 두 구는 시인이 공간은 대립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말하여 주는 굳게 닫힌 궁전문을 보게 된 시인의 눈이 동시에 인간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푸르게 자라 있는 버들과 부들도 발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인의 공간관이 늘 그에게 그러한 시각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끝에서 네번째와 세번째 두 구를 보자. 이러한 모습에 촉발되어 회고의 감회에 젖게 된 시인은 時事에 깊은 비애를 느끼고 눈물로 가슴을 적신다. 그러나 강가의 풀과 꽃은 봄을 맞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들의 무심함은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시인은 탄식한다. 시인의 자아와 외물 사이에 감정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上元 元年(760) 成都에 있을 때 지은⁶⁾ 〈蜀相〉을 다시 예로 들어 보자.

丞上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
 映階碧草自春色 隔葉黃鸝空好音
 三顧頻繁天下計 兩朝開濟老身心
 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

승상의 사당을 어디에서 찾을까?
 錦官城 밖 잣나무 뺨뺨한 곳이더라.

6) 《補注杜詩》 卷二十一 〈蜀相〉: 蜀相은 諸葛武侯이다. 당연히 上元 원년에 지은 것이다.(蜀相爲諸葛武侯, 當是上元元年作.)

섬돌에 비친 푸른 풀은 절로 봄 빛이요,
 앞새 저쪽 노란 피꼬리는 하릴없이 좋은 소리로다.
 세 번 찾은 일 수고롭게 했던 것은 천하를 위한 피였고,
 두 조정을 열고 이룬 것은 늙은 신하의 마음이었어라.
 군대를 내어 아직 이기지 못한 채 몸이 먼저 죽어서,
 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시의 전반부는 諸葛亮의 사당을 묘사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후반부는 시인의 감회이다.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함련의 풀과 피꼬리이다. 그것들은 우선 수련의 잣나무와 대립한다. 뻣뻣히 자라 있는 잣나무는 마치 제갈량의 정신을 아는 듯하다. 그러나 봄이 오자 ‘절로’ 푸른 빛을 발하고 ‘하릴없이’ 지지귀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은 이처럼 잣나무와 대립함으로써 우선 전반부의 공간을 이원화시킨다. 다시 후반부의 시인과 관련하여 보자. 시인은 劉備와 제갈량의 옛 공업과 충정을 회상한다.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제갈량을 애도하다가 자기 자신의 일생도 돌이켜 본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 자못 특출한 인물이라 곧장 요직에 올라, 임금을 堯舜보다 훌륭하게 만들고 나라의 풍속도 순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⁷⁾ 정도의 자부심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玄宗 肅宗 두 대에 걸쳐 갖가지 방법으로 출사를 도모하였지만 좌절하고 말았다. 그러한 자신의 인생은 제갈량의 그것이 아닌가? 시인은 ‘懷才不遇’의 비애를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시인의 감회는 이처럼 진지하고 비애는 또 농후하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로’ 빛을 발하고 ‘하릴없이’ 지지귀고 있을 뿐, 시인의 마음과 아무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哀江頭〉를 쓴 시기는 두보가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이다. 〈蜀相〉을 쓴 시기는 성도에 자리잡아 비교적 안온한 삶을 살던 때이다. 그러나 이 두 수의 시에서 시인은 모두 자아와 감정의 교통이 단절된 외물을 설정하고 있어, 외물을 자아와 대립시켜 보는 그의 시각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7) 《杜詩詳註》卷之一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自謂頗挺出, 立登要路津. 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

외물을 자아와 대립시켜 보는 시각을 가진 시인의 공간에서 외물은 시인의 감정과 무관한 존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시인의 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한다. 〈愁〉를 예로 들어 보자.

江草日日喚愁生 巫峽泠泠非世情
盤渦驚浴底心性 獨樹花發自分明
十年戎馬暗南國 異域賓客老孤城
渭水秦山得見否 人今罷病虎縱橫

강 풀은 날마다 시름을 불러 일으키고,
巫峽 맑은 물 소리 세간의 정이 아니로다.
소용돌이 치는 물에서 백로는 목욕하니 무슨 심사인가?
홀로 자란 나무에 꽃이 피니 절로 뚜렷하도다.
십년 전쟁에 남쪽 나라 암울하고,
이역 나그네는 외로운 성에서 늙어 가노라.
渭水와 秦山을 볼 수 있을까?
사람은 지금 지치고 병들었는데 호랑이는 설치고 다니는구나.

시의 후반부를 보면 시인은 갖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그러나 전반부에 등장하는 강가의 풀, 巫峽의 물, 목욕하는 백로, 꽃이 핀 나무 등의 외물은 시인의 시름을 이해해주는 커녕 도리어 시름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자연물들이다. 그러나 시인의 공간 속에서 이들은 단순히 시인의 자아와 융합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증스럽다 할 만한 정도의 적대적인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⁸⁾ 〈愁〉에서 보이는 것과 같

8) 王嗣奭도 “시름에 잠긴 사람의 심사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미워할 만하다. 예를 들어 강 풀이 새로 자라난 것을 도리어 시름을 불러 일으킨다고 여기고, 무협의 물 흐름을 도리어 인정에 가깝지 않다고 여기고, 소용돌이 치는 물에서 백로가 목욕하는 것은 본래 자득한 모습인데 그것이 무슨 심정이라도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홀로 자란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봄의 뜻인데 그것이 단지 스스로 분명하다고 여겼다. 시름이 심상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감정도 정상적인 것과 상반된 것이다.(愁人心事, 觸目可憎. 如江草新生, 却謂喚起愁思, 巫峽中流, 却謂不近人情, 盤渦驚浴, 本自得也, 疑其有何心情, 獨樹花發, 此春意也, 謂其只自分明. 愁出非常, 故情亦反常耳.)”(《杜詩詳註》卷之十八 〈愁〉에 인용된 《杜臆》. 현전하는 《杜臆》의

은 외물에 대한 시인의 시각은 여러 편의 다른 시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春望>에서 ‘感時花濺淚，恨別鳥驚心.(시절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으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을 서러워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이라고 하였고, <登樓>에서 ‘花近高樓傷客心.(꽃이 높은 누각 옆에 피어서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공간이라면 아름다운 꽃의 모습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대개 사람의 심사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인의 공간에서 이들은 그를 울게 만들고 놀라게 하고 상심하게 하는 존재로서 그와 대립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두보는 자아와 외물은 대립한다는 시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그가 의식한 공간은 자아와 외물이 대립하여 이원화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의 시간관,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발전에 대한 그의 관점은 어떠한가? 代宗 廣德 2年(764)에 쓴⁹⁾ <憶昔二首>의 둘째首를 예로 들어 보자.

憶昔開元全盛日 小邑猶藏萬家室
 稻米流脂粟米白 公私倉廩俱豐實
 九州道路無無虎 遠行不勞吉日出
 齊紈魯魯車班班 男耕女桑不相失
 宮中聖人奏雲門 天下朋友皆膠漆
 百餘年間未災變 孫淑禮樂蕭何律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는데, 《杜詩詳註》에 인용된 것이 더욱 조리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를 따랐음.)라고 하여, 외물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시인의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라 보여진다.

- 9) 《杜詩詳註》卷之十三 <憶昔二首>에 인용된 《杜臆》: 이 시는 工部員外郎이 된 이후 지난 일을 추억하여 논한 것이다. 그래서 ‘憶昔’이라고 시의 제목을 하였으니, 바로 廣德 二年 嚴武의 막료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此詩既爲工部郎後，追論往事也。故以憶昔爲題，乃廣德二年嚴武幕中作。) 《補注杜詩》卷八 <憶昔二首>: 마땅히 廣德 二年에 지은 것이다.(當是作於廣德二年.)

豈聞一絹直萬錢 有田種穀今流血
 洛陽宮殿燒焚盡 宗廟新除狐兔穴
 傷心不忍問耆舊 復恐初從亂離說
 小臣魯鈍無所能 朝廷記識蒙祿秩
 周宣中興望我皇 灑血江漢身衰疾

옛날을 돌이켜보건대, 開元 전성 시절에는
 작은 읍에서조차 만 가구가 있었다.
 입쌀은 기름이 흐르고 좁쌀은 하얗으며
 관청과 私家집 창고가 모두 풍성하였다.
 온 세상의 길에는 승냥이 호랑이 같은 도적이 없어서
 먼길을 갈 때 길일을 가려서 나서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齊 나라 魯 나라 갖가지 비단을 실은 많은 수레가 소리내며 달렸고
 남자는 발갈고 여자는 누에치는 일을 서로 잃지 않았다.
 궁중의 천자계선 雲門樂을 연주하고
 천하의 벗들은 모두 아교나 옷처럼 사귀어 단단하였다.
 백여 년 동안 재난과 변고가 없었으니
 孫叔通의 예악과 蕭何의 법령이 행하여졌다.
 어찌 들었겠는가? 비단 한 필이 일만전이나 한다는 말을.
 곡식 심던 밭에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다네.
 洛陽의 궁전은 불타서 모두 없어지고
 종묘는 여우 토끼의 구멍을 새로이 없애고 있다.
 아픈 마음 차마 노인네들에게 묻지 못하니
 당초 난리났던 적부터 이야기할까 다시 두려워서지.
 小臣은 노둔하여 잘하는 것이 없는데
 조정은 기억해 주어 벼슬을 받았다.
 周 宣王 때의 중흥을 우리 황제께 바라오니
 江漢에 피눈물 뿌리는 이 몸은 늙고 병들었다오.

이 시의 제12구까지는 지난날 開元 연간의 번성하였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이고, 제13구 이하 네 구는 당시 廣德 연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우
 선 주목되는 것은 시 속에 묘사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하나는 번성한
 것 하나는 혼란한 것의 양상으로 극명하게 대립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묘사의 내용이 단순히 대비의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시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장법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환상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점들은 시인의 시간관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즉 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대립하는데, 그러한 관점이 그대로 시에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시인으로 하여금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그 역시 이 시에 표출된 것이다. 그러면 이 시를 쓸 당시 시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 시의 끝 두 구절에서 시인은 唐 나라의 중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역대의 두시 연구가들은 여기에 이 시의 主旨가 담겨 있고, 앞에서 개원 시절에 대하여 칭송한 것도 결국은 그 시절의 번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仇兆鰲는 “이 장은 治亂興亡의 까닭에 대하여 반복하여 통렬하게 진술하였으니, 아마도 代宗이 난리를 바로잡고 치세를 돌이켜 이루어 다시 개원 시절의 번성을 볼 수 있기를 급히 바랬던 것이리라.”¹⁰⁾라고 하였고, 浦起龍은 “번성했던 시절의 일을 멀리 회상하여 말함으로써, 지금의 시절이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을 뿐이다.”¹¹⁾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전통적인 두시 연구가들의 이 시에 대한 이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의 시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과거나 현재와는 성격 상 차이가 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그 자신이 스스로 겪고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미래는 그가 참여할 수 없거나 스스로 참여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이는 이 시에서 그가 ‘자신은 노둔하여 잘하는 것이 없고(小臣魯鈍無所能)’, ‘몸은 늙고 병들었다(身衰疾)’고 한 말에서 자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시인의 의식 속에는 과거와 현재만이 실재하는 것이고 미래는 실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 보이는 시간의 변천

10) 《杜詩詳註》卷之十三〈憶昔二首〉其二的 仇兆鰲 評：此章於理亂興亡之故，反覆痛陳，蓋극望代宗撥亂反治，復見開元之盛焉。

11) 《讀杜心解》卷二之二〈憶昔二首〉：遠追盛事，以冀今之克還其舊耳。

에 대한 시인의 인식 양상을 통하여 그의 시간관을 검토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 두 시점만을 대상으로 하면 될 뿐 미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여겨져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더라도, 시인의 시간관이 보이는 특성은 동일하다. 그가 기대한 미래의 모습은 결국 국 과거 모습의 재현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의 시간관을 형성하는 시점들은 여전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대립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憶昔二首〉의 둘째 首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보였던 과거는 좋은 것이고 현재는 나쁜 것이라는 시인의 시간관은 그 개인의 생애를 대상으로 한 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上元 二年 (761) 成都에서 지은¹²⁾ 〈百憂集行〉을 보자.

憶年十五心尙孩 健如黃犢走復來
庭前八月梨棗熟 一日上樹能千回
卽今倏忽已五十 坐臥只多少行立
強將笑語供主人 悲見生涯百憂集
入門依舊四壁空 老妻 我顏色同
痴兒不知父子禮 叫怒索飯飯門東

예전 나이 열 다섯이던 때를 생각하니, 마음은 여전히 어린애였고
튼튼하기는 누른 송아지 같아 달음박질로 왔다 갔다 했더랬지.
팔월이라 뜰 앞의 배와 대추 익을 때면
하루에도 나무에 오르기를 능히 천 번이나 했더랬지.
지금은 어느 사이 벌써 나이가 오십,
앉고 눕는 일만 많고 걸거나 서는 적이 적다네.
억지로 우스개 소리를 주인에게 하지만,
이내 생애 온갖 근심덩어리임을 슬퍼하며 본다네.

12) 《補注杜詩》卷七 〈百憂集行〉: 시에서 ‘지금은 어느 새 나이가 이미 오십’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上元 二年 辛丑에 지은 것이다. 공이 壬子년에 태어났으니 이 때에 이르러 나이가 딱 오십이다.(詩云, 卽今 忽已五十, 當是 上元二年辛丑作. 公生於壬子, 至是年恰五十.)

문에 들어서면 여전히 사방 벽은 텅비었고,
 늙은 처 나를 볼 때 얼굴빛은 마찬가지로.
 어린 늙은 애비 자식 간의 예도 몰라
 성을 내며 밥 달라 소리지르고 부엌 문에서 운다네.

이 시는 과거의 시점인 열 다섯 살 때 시인의 생활상과 현재의 시점인 쉰 살 때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두 생활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극명하게 대비되어, 시인의 시각으로 보는 과거와 현재는 대립적인 모습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앞에서 검토한 〈憶昔二首〉의 둘째首는 주로 시대상을, 그리고 〈百憂集行〉은 전적으로 개인적 생애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시 중에는 이와 달리 시대상과 개인적 생애를 함께 다룬 것들도 있다. 회고의 정을 읊은 〈昔遊〉, 〈遣懷〉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작품을 보면 과거는 그것이 시대상이거나 개인의 생활상이거나 간에 좋게 묘사되어 있고, 현재는 나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시인의 시각이 일부 작품에서 우연히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관과 관련되어 그의 시에 일관되게 표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한다.

이상에서 본 두보의 공간관과 시간관은 물론 동일한 시 속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唐詩三百首》의 편자인 衡塘退士가 두보 칠언절구 중 壓卷이라고 극찬한¹³⁾ 〈江南逢李龜年〉을 하나의 예로 보자.

岐王宅裏尋常見 崔九堂前幾度聞
 正是江南好風景 落花時節又逢君

岐王의 저택 안에서 자주 뵈었고,
 崔九의 堂 앞에서 몇 번인가 노래를 들었지요.

13) 세상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나이의 젊음과 늙음, 彼此의 처량한 떠돌이 신세 등이 모두 그 속에 담겨 있으니, 두보의 칠언율시는 이것이 압권이 다.(世運之治亂, 年華之盛衰, 彼此之淒涼流落, 俱在其中, 少陵七律, 此爲壓卷.)

마침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
꽃 지는 시절에 또 그대를 만났구요.

앞의 두 구는 시인과 李龜年의 지난날의 遭遇에 대한 진술이다.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두 사건에 대한 간단한 진술일 뿐이다. 그러나 이 두 구가 함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다. 두 사람의 과거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도 말하고자 하며, 이들이 살아왔던 시대상도 말하고자 한다. 과거의 상황을 보자. 이구년은 당시 岐王이나 崔九의 집에 불러다니며 전성을 구가하였다. 왕공 귀족을 찾아다니다 이구년의 노래를 들었을 때 시인은 아직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왕공 귀족의 저택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던 이 시절은 天寶年間으로, 비록 내면적으로는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외면적으로는 번성의 극점에 서 있었다.¹⁴⁾ 개인의 생활상이거나 시대상황이거나 간에 그 당시는 모두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이 시는 시인이 죽은 해인 大曆 五年(770)에 지었다.¹⁵⁾ 모든 꿈이 좌절된 시인이 죽음을 눈 앞에 둔 시기에 쓴 것이다. 지금

14) 岐王은 睿宗의 넷째 아들인 李隆範이다. 그리고 崔九와 관련하여 原注에서 ‘최구는 바로 殿中監 崔滌이다.(崔九, 卽殿中監崔滌.)’라고 하였다. 이릉범과 최척은 모두 開元年間의 사람이다. 그러나 시의 앞 두 구의 시점은 開元年間이 아니고 天寶年間이다. 이러한 사실은 仇兆鰲의 다음 말이 잘 밝혀 준다. “黃鶴이 말하기를 ‘開元十四년에 공은 다만 열 다섯 살이었다. 그 때는 아직 梨園弟子가 없었다. 공이 李龜年을 본 것은 반드시 天寶十載 후이니, 시에서 岐王이라고 한 이는 기왕을 이은 珍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이른바 ‘崔九堂前’이란 또한 최씨의 옛 堂을 가리킬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岐王과 崔九는 모두 開元十四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龜年과 함께 놀 수 있었겠는가?”(黃鶴云, 開元十四年, 公止十五歲, 其時未有梨園弟子. 公見李龜年, 必在天寶十載後, 詩云岐王, 當指嗣岐王珍. 據此, 則所云崔九堂前者, 亦當指崔氏舊堂耳, 不然, 岐王崔九并卒於開元十四年, 安得與龜年同遊耶.) (《杜詩詳註》卷之二十三〈江南逢李龜年〉)

15) 朱鶴齡은 이 시의 저작시기와 관련하여 “시제에서 ‘江南’이라 하였으니 반드시 潭州에서 지은 것이다. 예전에는 大曆三年 荊南에 있을 때의 시에 편차하였는데, 옳지 않다.(題曰江南, 必潭州作也. 舊編在大曆三年荊南

시인이 어떤 상태인지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구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강남을 떠돌아 다니는 신세로,¹⁶⁾ 이전의 영화가 있었기에 지금이 더욱 처량한 신세이기도 하다. 현재의 시대 상황도 나쁘다. 安祿山의 난을 겪어 극도로 피폐한 상태이다. 이 두 구가 함축하는 과거와 현재는 그것이 개인의 생활상이거나 시대상황이거나 간에 이처럼 극도로 대비된다. 앞에서 본 시인의 시간관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셋째 구와 넷째 구는 시인과 이구년의 현재의 조우에 대한 진술이다. 여기에는 한 공간이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의 인물과 주변의 자연이 구성하는 공간이다. 인물의 지금 모습은 한없이 처량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 주변의 자연은 아름다운 강남의 모습이다. 이러한 구성은 공간을 이원화하여 보는 시인의 공간관이 이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Ⅲ. 杜甫의 空間觀 時間觀과 杜詩 風格의 상관성

앞에서 몇 수의 시를 통하여 두보의 공간관과 시간관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두시의 비장한 풍격을 대표하는 몇 수의 시를 예로 들어, 서언에서 제기한 공간관과 시간관이 두시의 풍격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서언

詩內, 非是.”(《杜詩詳註》卷之二十二〈江南逢李龜年〉에 인용한 朱鶴齡注 참고.)라고 하였는데, 시인이 潭州에 있을 때는 大曆 五年이다.

- 16) 《明皇雜錄》: 天寶 연간에 주상은 궁중의 여자 수백 명을 명하여 梨園弟子로 삼고 모두 宜春院 북쪽에 거처하게 하였다. 주상은 원래 음률을 잘 알았고, 당시에 馬仙期, 李龜年, 賀懷智 등이 있었는데 모두 음률을 훤히 알았다. …이구년이 특히 은총을 입었다. 그 뒤 강남 땅을 떠돌게 되었다. 매번 좋은 때 좋은 경치를 만나면 언제나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를 몇 곡 불렀는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술마시기를 그만 두지 않는 이가 없었다.(天寶中, 上命宮中女子數百人爲梨園弟子, 皆居宜春院北, 上素曉音律, 時有馬仙期李龜年賀懷智, 皆洞知律度. … 龜年特承恩遇. 其後流落江南, 每遇良辰勝景, 常爲人歌數, 座上聞之, 莫不掩泣罷酒.) (《杜詩詳註》卷之二十二〈江南逢李龜年〉에서 다시 인용)

에서 제기한 가정이 과연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大曆 三年(768)에 쓴¹⁷⁾ 〈登岳陽樓〉는 두시의 五言律詩 중 걸작으로 꼽힌다. 이 시는 두시의 비장한 풍격의 전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두시다운 두시이다.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
戎馬關山北 憑軒軒泗流

예전부터 洞庭湖에 대해 들었는데,
오늘 岳陽樓에 오르노라.
吳나라 楚나라 동남방에 터져 있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떠 있도다.
친지와 벗에게서 일자 소식은 없고,
늙고 병든 몸에선 외로운 배 한척만 있도다.
兵馬 關山의 북녘에 있으니,
난간에 기대어 눈물 콧물 흘리노라.

이 시는 두시에서 흔히 쓰이는 시상전개 방식인 전반부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후반부에서 감회를 묘사하는, 이른바 ‘前景後懷’의 방식을 쓰고 있다.¹⁸⁾ 전반부에 묘사된 洞庭湖의 모습을 보자. 그것은 하도 커서 吳나라 楚나라 두 넓은 지역이 그것에 의하여 쪼개져 있는 듯하다. 시야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물뿐,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그 곳에 하늘과 땅이 浮動하는 듯하다. 한

17) 《補注杜詩》卷三十五 〈登岳陽樓〉: 마땅히 大曆 三年에 지은 것이다.(當是 大曆三年作.)

18) 《杜詩詳註》卷之二十二 〈登岳陽樓〉: 위의 네 구는 경치를 묘사하고 아래 네 구는 감정을 말하였다.(上四寫景, 下四言情.) 《杜臆》卷二十 〈登岳陽樓〉: 단지 ‘吳楚’ 두 구에서 이미 장관을 다 그렸으니 뒤의 시인들이 어디에서 손을 쓰겠는가? 후면 네 구에서는 다만 감정을 그렸으니 비로소 스스로의 詩인 것이다.(只吳楚二句已盡大觀, 後來詩人, 何處措手. 後面四句只寫情, 才是做自家詩.)

마디로 말하여 ‘壯壯하다’ 할 것이다. 다시 후반부를 보자. 시인은 함께 어울려서 살기 원하는 친지나 벗과 단절되어 있다. 고독한 그는 현재 늙고 병들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갈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린다. 후반부에 그려진 시인은 외롭고 초라해서 슬픔을 자아내는 모습이다.

이 시 전체를 읽고 나면 독자는 눈 앞에 하나의 그림을 떠올릴 것이다. 장황한 동정호와 초라한 시인이 대비된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본 〈旅夜書懷〉에서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여 내린 ‘넓고 넓은 천지의 한 마리 갈매기이다’라는 명제가 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시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장황한 동정호가 주는 맛과 초라한 시인이 주는 맛이 충돌하여 이룬 맛이다. 이것이 바로 두시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비장한 풍격이며, 이는 시인이 이 시에 장황한 대상과 초라한 자아를 대립적인 모습으로 동시에 등장시킴으로써 형성된 셈이다. 그러면 시인은 왜 대립되는 외물과 자아를 동시에 등장시켰을까? 이 물음의 답은 이 시의 풍격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말하여 줄 것이다. 장황한 모습의 대상을 볼 때, 만약 보는 사람이 자신을 대상과 융화하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의기도 장황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에 빠져들어 다른 상념에 젖어들지 않을 것이다. 시인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이원화된 공간관을 가진 그의 시각은 언제나 장황한 자연을 대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아와 외물이 융합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가진 그는 동정호를 보는 그 순간에도 그 곳은 자기가 융합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린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기 위하여 시인이 그린 그림은 대상과 자아를 대립적인 형태로 등장시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岳陽樓에 올라서 동정호를 보는 순간만은 시인도 장쾌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 전반부의 대상 묘사가 시인의 감회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즉, 전반부의 대상 묘사에는 후반부에 묘사된 시인의 슬픈 감회가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다. 黃生이 이 시를 평하여 “전반부에서 경치를 그린 것이 이렇게 광활 장대하고 다

섯째, 여섯째 구에서 그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처량하고 적막하니, 시 意境의 광활함과 협소함이 갑자기 달라졌다.”¹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壯한’ 외물과 처량한 자아의 대립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미지가 판연하게 달라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두시 중에는 이와 다른 것도 있다. 역대의 칠언율시 중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을 받는²⁰⁾ <登高>를 예로 보자.

風急天高猿嘯哀 渚清沙白鳥飛迴
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
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
艱難苦恨繁霜鬢 潦倒新亭濁酒杯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고 원숭이 울음 소리는 애절하며,
물가는 맑고 모래는 희고 새는 날며 선회한다.
끝없이 펼쳐 있는 나무의 낙엽은 쓸쓸히 지고,
다함 없는 긴 長江은 힘차게 흘러 온다.
만리 타향에서 가을을 서러워하며 언제나 나그네 노릇하더니,
평생 병 많은 몸이 홀로 臺에 오른다.
고생과 괴로움에 서리 같은 살적도 많은데,
쇠약한 몸이라 탁주 잔 드는 일도 새로 그만두었다.

이 시도 전반부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후반부에서 감회를 묘사하고 있다.²¹⁾ 전반부를 보자. 수련의 바람, 하늘, 물가 그리고 모래의 모습 등에는 가을의 이미지가 뚜렷하다. 이러한 가을날에 우는 원숭이, 선회하는 새의 모습은 무엇인

19) 前半寫景，如此此大，五六自敘，如此落寞，詩境闊狹頓異。(《杜詩詳註》卷之二十二 <登岳陽樓>에 인용된 黃生의 평어)

20) 《杜詩詳註》卷之二十 <登高>에 인용된 胡應麟 評: 이 시는 마땅히 고금 칠언율시의 제일이 되니, 반드시 唐代 칠언율시의 제일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此當爲古今七言律第一，不必爲唐人七言律第一也.)

21) 《杜詩詳註》卷之二十 <登高>: 위의 네 구는 높은 데 올라서 보고 들은 경치이고, 아래 네 구는 높은 데 올라서 느낀 정이다.(上四，登高聞見之景，下四，登高感觸之情.)

가 급박한 상황을 느끼게 한다. 그 상황이 무엇인가는 다음 연인 함련에서 분명해진다. 영원히 흐르는 강으로 流轉하는 세계를 비유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長江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은 바로 이 세계의 급한 유전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세계로의 유전일까? 끝없이 펼쳐 있는 나무에서 무수히 떨어지는 나뭇잎은 바로 지금 세계가 소멸의 세계로 유전해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원숭이와 새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슬피 울고 선회하며 날았던 것이리라. 후반부의 시인은 나이 들고 병든 나그네의 몸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타향에서 쓸쓸히 소멸의 길을 갈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시인의 눈에 이 가을의 모습이 전반부에 묘사된 것과 같이 보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인의 심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시는 이처럼 경치를 묘사함에 있어서 시인의 당시 심리가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경치가 주는 이미지는 시인의 것과는 다르다. 시인의 모습이 처량하고 슬픔을 느끼게 할 뿐인데 비하여, 그것은 비록 가을의 차고 쓸쓸함을 담고 있으나 동시에 장활하고 힘찬 기세가 있다. 따라서 이 시도 자아와 대상이 초라한 모습과 장활한 모습으로 대립되는 구조를 취한다. 蕭滌非는 이 시를 평하여, “비록 한 편의 悲歌이기는 하나 도리어 ‘산을 뽑고 세발술을 드는’ 맛이 있는 비가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비에’가 아니고 ‘悲壯’이며, ‘消沈한 맛’이 아니고 ‘격동하는 맛’이며, ‘시야가 협소한 맛’이 아니고 ‘마음이 탁 트이는 맛’이다.”²²⁾라고 하였는데, 이 시가 이러한 느낌을 주게 된 것은 바로 전반부의 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두보의 공간관이 시의 비장한 풍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시 그의 시간관이 반영된 시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보자. 말 그림을 노래한 〈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圖歌〉는 廣德二年(764)에 杜甫가 成都에 있을 때 지은²³⁾ 작품으로, 杜甫의 詠畫詩 중 걸작으로 꼽힌다.

22) 雖是一首悲歌，却是“拔山扛鼎”式的悲歌。它給予我們的感受：不是悲哀，而是悲壯；不是消沈，而是激動；不是眼光狹小，而是心胸胸大。(《杜甫詩選注》301쪽)

23) 《補注杜詩》卷八 〈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圖歌〉：시에서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金粟堆 앞의 송백 속에, 龍媒는 다 가버리고, 새들만 바람에

國初已來畫鞍馬，神妙獨數江都王。
 將軍得名三十載，人間又見眞乘黃。
 曾貌先帝照夜白，龍池十日飛霹靂。
 內府殷紅瑪瑙盤，婕妤傳詔才人索。
 盤賜將軍拜舞歸，輕紈細綺相追飛。
 貴戚權門得筆跡，始覺屏障生光輝。
 昔日太宗拳毛騮，近時郭家獅子花。
 今之新圖有二馬，復令識者久嘆嗟。
 此皆戰騎一敵萬，縞素漠漠開風沙。
 其餘七匹亦殊絕，迥若寒空雜霞雪。
 霜蹄蹴踏長長間，馬官廝養森成列。
 可憐九馬爭神駿，願視清高氣深穩。
 借問苦心愛者誰，後有韋諷前支遁。
 憶昔巡幸新豐宮，翠華拂天來向東。
 騰驤磊落三萬匹，皆與此圖筋骨同。
 自從獻寶朝河宗，無復射蛟江水中。
 君不見金粟堆前松柏裏，龍媒去盡鳥呼風。

國初 이래의 말 그림,
 신묘하기로는 유독 江都王을 꼽았다.
 曹將軍이 이름을 얻은 지 삼십 년,
 인간 세상에서 또 진짜 乘黃 보게 되었다.
 일찍이 先帝 玄宗의 照夜白을 그릴 때면,
 龍池에서 십일 동안 벽력이 울렸다.
 內府의 빨간 瑪瑙盤을,
 婕妤가 詔令을 전하자 才人이 찾아 왔다.
 瑪瑙盤을 장군에게 주자 절을 하고 춤추며 돌아가니,

지저귀는 것을'이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明皇을 장례치른 후에 지은 것이
 다. 梁權道는 寶應 元年 梓州에서 지은 시 안에 편입시켰는데 틀린 듯하
 다. 마땅히 廣德 二年 공이 다시 成都에 갔을 때 지은 것이다.(詩云, 君不
 見金粟堆前松柏裏, 龍媒去盡鳥呼風. 當是葬明皇後作. 梁權道編在寶應元年
 梓州詩內, 恐非. 當在廣德二年公再成都時作.)

가벼운 비단 가는 비단 옷들이 날듯이 쫓았다.
 貴威 權門들 필적을 얻어서야,
 비로소 屏障에 광휘를 발하는 듯 느꼈다.
 예전 太宗의 拳毛騮,
 근래의 郭子儀의 獅子花,
 지금 이 새 그림에 그 두 필의 말이 있으니,
 다시 아는 이로 하여금 오래 탄식하게 한다.
 이는 모두 전장에서 타는 말로 하나가 만을 당하는 것,
 흰 비단에 아득히 모래바람 이는 듯하다.
 그 나머지 일곱 필도 또한 뛰어난,
 아득히 빼어난 모습 찬 허공에 노을 눈이 석인 듯.
 楸子나무 긴 길을 서리 발굽 달리니,
 馬官과 廝養들은 줄을 지어 늘어 섰다.
 사랑스러운 아홉 필 말이 신준함을 다투니,
 돌아보는 모습 청고하고 기운은 深穩하다.
 묻노니, 고심하여 사랑한 자 그 누구인가?
 뒤에는 韋諷이요, 앞에는 支遁이라.
 생각하면 그 옛날 新豐宮에 남실 제에,
 翠華는 하늘 스쳐 동쪽으로 오셨지.
 날고 뛰던 磊落한 삼만 필,
 모두 이 그림과 근골이 같았지.
 보배 바쳐 河宗에게 조희한 뒤로는,
 다시는 강물 속의 교룡을 맞춘 적이 없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金粟堆 앞의 송백 속에,
 龍媒는 다 가버리고, 새들만 바람에 지저귀는 것을.

이 시는 詠畫詩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그림 자체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말그림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시인의 時事에 대한 감회를 기탁한 것이다.²⁴⁾ 당대에는 말의 많고 적음이 국력과 비례하였다.²⁵⁾ 시인도 그렇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24) 拙稿 〈杜甫 題畫詩의 특성과 의의〉 8~10쪽 참고.

25) 朱縱 〈略論杜甫詠鷹詠馬詩〉 1~2쪽 참고.

종종 그것을 빌어 국가 성쇠에 대한 감회를 기탁하였는데, 이 시는 바로 그러한 예의 하나인 것이다. 첫 구부터 스물 여섯째 구까지는 曹霸와 그의 말그림 그리고 韋諷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조패가 玄宗의 말을 그리던 시절의 이야기와 太宗과 郭子儀가 타던 준마를 다시 보는 듯한 ‘九馬圖’의 이야기를 할 때, 시인은 그 당시의 융성하였던 시절을 회상하고 흥이 도도한 듯하다. 스물 일곱째 구 이하의 현종을 생각하여 감개한 내용이다. 그 옛날 현종의 전성기에는 준마가 삼만 필이나 있었는데 현종이 죽은 지금 준마인 龍媒는 다 없어지고 무덤가에 새 소리만 들린다는 시인의 말은 王嗣奭이 지적하였듯이 그가 ‘말의 盛衰를 통하여 나라의 성쇠를 생각하고 애통한 심사를 이기지 못하고 있음’²⁶⁾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에 보이는 시인의 시간관은 앞에서 예로 든 〈憶昔二首〉 둘째 수와 흡사하다. 즉 과거 국가의 모습은 ‘壯한’ 것으로 여기고 현재는 쇠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과거 시절을 미화하고 동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그대로 이 시의 풍격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쓴 부분은 지난날을 ‘壯하게’ 여기는 시인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이로 하여 시상은 ‘壯한’ 맛이 있다. 그리고 필치는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 대한 시인의 시각을 반영한 당시의 모습에는 지난날의 ‘壯한’ 면을 찾을 길 없다. 그 모습은 독자에게 다만 서글픈 감개를 느끼게 할 뿐이다.

大曆 元年(766) 州에서 쓴²⁷⁾ 〈壯遊〉는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시를 쓰고 있는 당시까지의 생애를 서술한 것으로서 서사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것은 시로 쓴 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편폭이 아주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년 시절을 회상한 시의 첫 단락과 당시의 상황을 말한 끝 단락의 일부만 보기로 한다.

26) 就馬之盛衰, 想國之盛衰, 不勝其痛. (《杜詩詳註》卷之十三 〈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圖歌〉에 인용된 《杜臆》)

27) 《補注杜詩》卷十二 〈壯遊〉: 이 시는 大曆 元年에 지었다.(此詩作於大曆元年.)

往者十四五 出遊翰墨場
 斯文崔魏徒 以我似班揚
 七齡思卽壯 開口詠鳳皇
 九齡書大字 有作成一囊
 性豪業嗜酒 疾惡懷剛腸
 脫落小時輩 結交皆老蒼
 飲酣視八極 俗物多茫茫

.....

小臣議論絕 老病客殊方
 鬱鬱苦不展 羽翮困低昂

.....

옛날 열 너댓 살 적,
 글 짓는 마당에 나가 놀았는데,
 글을 하는 崔尙과 魏啓心 무리들이
 나를 班固나 揚雄 같다 하였지.
 일곱 살 적엔 생각이 壯하여,
 입을 열면 봉황을 노래하였고,
 아홉 살 적엔 큰 글자를 썼으니,
 쓴 것이 자루 하나를 이루었지.
 성품이 호방하여 술을 좋아한데다,
 악을 미워하여 생각이 강직하였지.
 당시 무리들 하찮게 여기고,
 사권 이는 모두 나이든 분이었지.
 술을 달게 마시고 온 세상 바라보니,
 속물은 많고 많아 아득하였더라.

.....

소신은 의론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늙고 병든 몸으로 타향에서 나그네 노릇 한다.
 우울한 상태는 괴롭게도 펼 수가 없고
 날개는 날개짓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구나.

.....

시인은 소년 시절에 재주가 뛰어났고 포부가 컸고 기개가 대단하였다는 사실을 신이 나서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절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좋은 일만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 시를 쓴 당시의 모습은 이와 판연히 다르다. 정계에서 좌절을 겪었고, 타향에서 살고 있고, 늙고 병들어 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이 비록 이 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시상이 앞에서 예로 든 〈百憂集行〉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즉 과거 자신의 ‘壯한’ 모습과 현재의 처량한 모습의 대비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화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시가 〈百憂集行〉과 동일한 시인의 시간관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劉克莊은 “이 시는 오십 여섯 번 압운하였는데, 오언고시 중에서 특히 비장한 말이 많은 것이다. 荊軻의 노래, 雍門周의 琴, 高漸離의 筑이라 할지라도 音調節奏가 이것의 跌宕 豪放함만은 못하리라.”²⁸⁾라고 하였다. 시의 절주가 질탕하고 호방하다는 것은 시가 장쾌한 맛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시가 장쾌한 맛을 느끼게 하는 데에는 물론 장편의 시를 기세 있고 변화있게 끌어 가는 시인의 탁월한 필력에 힘입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壯한’ 맛과 충돌하여 이 시의 풍격을 형성하는 슬픈 맛도 그의 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시의 비장한 풍격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형성하는 ‘壯한’ 면과 슬픈 면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 시에 반영된 시인의 시간관이 바로 그 주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이다.

이상에서 두보의 공간관과 시간관이 시의 비장한 풍격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검증의 명료성을 위하여 비장한 풍격이 뚜렷한 시, 즉 슬픈 맛과 ‘壯한’ 맛을 모두 뚜렷하게 가지는 시를 검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공간관과 시간관을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풍격이 ‘비장하다’는 범

28) 此詩押五十六韻, 在五言古風中, 尤多悲壯語, 雖荊軻之歌, 雍門之琴, 高漸離之筑, 音調節奏不如是之跌宕豪放也。(《杜詩詳註》卷之十六 〈壯遊〉의 劉克莊 評語)

주에 들 수 있는 두시가 모두 앞에서 예로 든 시와 같지는 않다. 슬픈 맛과 ‘壯한’ 맛 중 어느 하나가 두드러진 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상당수에서도 시인의 공간관 시간관과 풍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관과 시간관이 언제나 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작용하여 풍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다시 실례를 들어 이러한 사실들을 검증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앞 절에서 논의 과정 중에 거론된 시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IV. 結 語

두보의 눈에 비친 우주는 이원화된 것이다. 공간에는 자아와 외물이 하나는 슬픈 존재로서 하나는 ‘壯한’ 존재로서 대립하고,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가 역시 같은 유형으로 대립한다. 시인의 자아는 외물과 융화하지 못하고, 현재의 시인은 과거의 상태를 지향하지만 불가능하다. 두보의 이러한 공간관과 시간관은 시의 풍격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壯한’ 맛을 주는 외물과 슬픈 맛을 주는 자아, ‘壯한’ 맛을 주는 과거와 슬픈 맛을 주는 현재가 각각 동일한 시 안에서 충돌하여 두시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보는 왜 외물과 과거를 ‘壯한’ 것으로 보았을까? 과거는 그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자. 그러면 외물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시에 묘사된 외물은 시인의 심리가 투영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시학 이론은 이미 상식화된 것이다. 두시도 예외일 수 없다. 외물이 ‘壯하게’ 묘사된 것은 그것 자체가 본연적으로 ‘壯한’ 것이어서가 아니고 시인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다. 시인의 ‘壯한’ 심리가 외물에 투영되어 외물이 ‘壯한’ 것으로 묘사된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登岳陽樓〉의 경우, 시의 전반부가 순수하게 대상의 묘사이고 시인의 심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시상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장황한 동정호의 묘사는 동시에 동정호를 대하였던 순간 느낀 시인의 장황한 심리의 묘사이기도 하다. 사실 시인은 첫 구에서 그가 오랜 숙원을 이루어 악양루에 오른다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심경이 장쾌한 것임을 이미 전제하였다. 그러나 장

활한 심경은 잠시였고, 그의 공간을 보는 시각에 의하여 그는 다시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 시의 시상은 표면적으로는 장황한 대상과 초라한 자아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장황한 심리와 처량한 심리가 대립하는 이중의 구조일 것이다. 〈登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인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멸하여 가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연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그렇게 ‘壯하게’ 보이는 것은 시인의 심리 내면에 ‘壯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보면 두시의 외면에 보이는 ‘壯한’ 외물과 슬픈 자아의 대립은 결국 시인의 심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壯한’ 심리와 슬픈 심리의 충돌의 표출인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간을 ‘壯한’ 것과 슬픈 것의 대립으로 보는 시인의 공간관은 바로 심리 내면에 잠재한 ‘壯한’ 심리와 슬픈 심리 간의 충돌의 현상화인 것이다. 시간관의 경우도 동일하다. 〈壯遊〉 등에 묘사된 그의 지난날의 개인 생활은 비록 실상일지 모르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나치게 환상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圖歌〉 등에 묘사된 지난날의 시대상은 더욱 그러하다. 지난날의 그의 생활과 시대상이 반드시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환상적인 것일 수만도 없다. 이는 그의 생애와 당시의 시대상을 일별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과거를 회상할 때면 언제나 좋았던 경험만 회상하고 또 그것을 환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과거를 좋은 것으로 여기는 시인의 이러한 시각도 역시 그의 심리의 투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의 심리 내면에 자리 잡은 ‘壯한’ 심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빌어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을 이원화된 것으로 보는 시인의 공간관과 시간관이 그의 심리 내면에 잠재한 ‘壯한’ 심리와 슬픈 심리 간의 충돌의 현상화라면, 시인의 심리 내면에 왜 그러한 상반된 심리가 잠재하고 또 항상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다시 새로운 의문으로 제기될 것이다. 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전의 두시 연구자들은 두시의 비장한 풍격을 주로 두보의 애국 사상이나 사회 사상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비록 일부의 시에서 유용성이 인정되지만 두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고에서 인용한 시들을 통하여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哀江頭〉, 〈蜀相〉, 〈憶昔二首〉, 〈韋諷錄事宅觀曹將軍畫馬圖歌〉 등의 시들에는 물론 나라와 시사를 근심하는 시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시들은 주로 그의 개인적인 심경과 관계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시들의 풍격과 상관성이 있는 시인의 공간관과 시간관을 형성하게 된 시인의 심리를 시인의 애국사상과 사회사상 등으로 해석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두시의 풍격과 관계되는 시인의 심리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과 관점을 달리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본고의 논의는 두시의 풍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된 셈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새로운 지면을 빌어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仇兆鰲注, 《杜詩詳註》,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 黃鶴等注, 《補注杜詩》, 文淵閣四庫全書影印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王嗣奭撰, 《杜臆》, 上海古籍出版社, 1983
- 浦起龍注, 《讀杜心解》, 臺北: 九思出版有限公司, 1979
- 衡塘退士, 《唐詩三百首》, 北京: 中華書局, 1979
-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60년
- 拙稿, 〈杜甫 題畫詩의 特性과 意義〉 (《蒼石李炳漢教授頌壽記念論文集》, 1993)
- 朱縱, 〈略論杜甫詠鷹詠馬詩〉 (成都杜甫研究學會 杜甫研究學刊 《草堂》, 1986년 1월호)